

2026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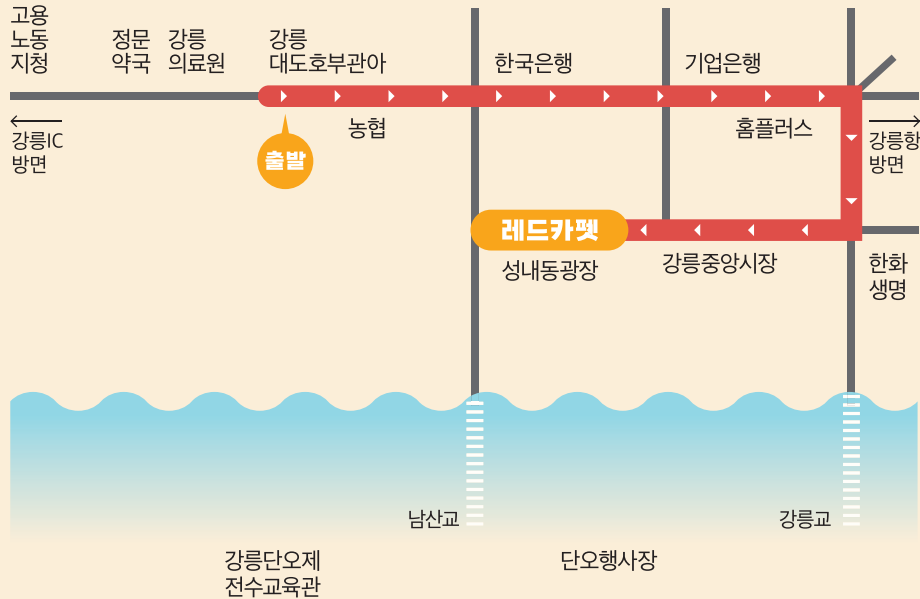
06. 17.(수) 18:30
성내동 광장 사전공연 18:00

신통대길(神通大吉) 길놀이는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단오장 내 곳당으로 모시는 영신행차와 함께
21개의 읍·면·동 주민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정서와 흥이 깃든 길놀이로 여러분의 앞날이 잘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2026 신통대길 길놀이 코스

강릉대도호부관아(출발) > 옥천 오거리 > 금성로
> 성내동 광장(레드카펫 3분 퍼포먼스)



길놀이 대기구간 화장실 개방 및
임시화장실 설치 안내

- 강릉의료원 정문 화장실 / 강릉시 경강로 2007
- 명주예술마당 / 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1
- 대도호부관아 화장실 / 강릉시 명주동 39
- 고용노동지청과 정문약국 사이 / 임시화장실

2026 신통대길 길놀이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강릉시 읍·면·동, 사전 공연팀과 일반기관·단체를 포함해
총 31개 팀이 참여합니다.

2026 강릉단오제
폴리니,
단오다

contents

- 04 사전 공연팀
- 05 신통대길 길놀이 참여기관·단체
- 09 신통대길 길놀이 마을별 소개
강동면 / 왕산면 / 성산면 / 연곡면 /
옥계면 / 초당동 / 사천면 / 구정면 /
주문진읍 / 경포동 / 포남1동 / 교2동 /
홍제동 / 내곡동 / 포남2동 / 강남동 /
성덕동 / 중앙동 / 송정동 / 교1동 / 옥천동
- 30 영산홍 악보

신통대길 길놀이 행렬 순서

1부 시작 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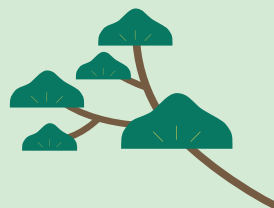
강릉그린실버악단 > 강동면 > 왕산면 > 성산면 > 연곡면 > 옥계면 > 국외 공연단

2부 시작 19:40

관노가면극 전수단체 > 영신행차(강릉단오제보존회)/사천하평답교놀이 > 기관사회단체장 >
단오등 참여시민 >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모델교육협회강릉지회 >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
강릉시글로벌외국인팀 > 강릉지역대학 학생연합단 > 강릉농악보존회 > 초당동 > 사천면 > 구정면 >
주문진읍 > 경포동 > 포남1동 > 교2동 > 홍제동 > 내곡동 > 포남2동 > 강남동 > 성덕동 > 중앙동 >
송정동 > 교1동 > 옥천동

강릉시 체조협회

강릉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단오제를 축하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인 초·중등 청소년들이 모였다. 강릉시체조협회는 지역사회 생활체조의 중심이자 실력파 댄스학원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K-POP과 창작 안무를 선보인다.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초등부 댄스부터 중등부의 힘찬 퍼포먼스까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개성 넘치는 무대를 보여준다. 단순히 춤을 따라 하는 것을 넘어 무대를 창조하는 열정 가득한 댄스팀의 공연을 기대해 본다.



강릉문화재단 꿈의 무용단

꿈의 무용단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용 예술교육 지원사업 활동으로 시작해 올해 4년째를 맞이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시선으로 강릉 전통 농요인 학산 오독떼기를 재해석해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창작무용을 선보인다. 노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서와 공동체, 그리고 문화로 완성되는 여정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공연이 될 것이다.

강릉그린실버악단



1998년 창단한 강릉그린실버악단은 은빛 머리칼의 단원들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관현악단이다. 대중가요와 클래식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국내외 무대를 장식하며, 창단 이후 강릉단오제에 빠짐없이 참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능숙하게 훌륭한 연주를 펼쳐 보여온 강릉그린실버악단의 선율에 강릉단오제의 열띤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것이다.

국외 공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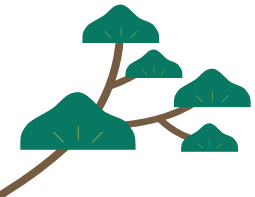


올해 길놀이에는 중국(가흥시·형주시), 필리핀, 태국의 대표 공연단이 참여한다. 각국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노래와 연극, 오페라, 춤과 음악으로 글로벌 축제의 장을 열어갈 국외공연단의 이국적인 행진을 감상할 수 있다.



강릉사천 하평답교놀이 보존회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자 강릉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으로 평가되는 사천하평답교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다리를 밟으며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이다. 이번 길놀이에서는 횃불 대신 연등을 들고 행진하며 구경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나누어 준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강릉지회

강원특별자치도문화예술모델교육협회강릉지회는 우리 고유의 정통성에 현대적인 색채 감각을 결합한 독창적인 미학을 선보인다. 60명의 모델 행렬은 익숙한 길놀이 현장을 세련되고 화려한 패션쇼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색채 스펙트럼을 창조하며, 축제의 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한국예총 제주도 연합회



강릉단오제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제주예총이 올해는 대천동큰마당민속보존회와 함께 방문했다. 제주의 전통 굿악기 가락에 맞춘 놀이굿 '대천동걸궁' 무대를 기대하며, 제주 고유의 탐라문화제를 미리 엿볼 수 있다.



강릉시 글로벌 외국인팀

강릉 농업 발전의 소중한 파트너인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과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전통의상을 입고 행진한다. 다양한 국적의 강릉 거주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강릉단오제를 축하하는 화합의 행렬을 만나보자.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성을 상징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강릉지역대학 학생연합단



강원대 강릉캠퍼스, 가톨릭관동대학교, 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총 4개 학교에서 12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 학생들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진다. 역동적인 청춘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국적과 언어를 넘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를 선보인다.



강릉농악 보존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농악의 맥을 잇는 단체로, 지역 민속예술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문화의 정신과 예술성을 국내 외에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번 길놀이에서는 영동지역 특유의 빠르고 힘찬 가락 속에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가 그려진 대형기 놀이를 선보이며, 익살스러운 호랑이 탈을 쓴 연희꾼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진다.

신통대길 길놀이

마을별 소개

강동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곳
#창경바리 어업과 같은 전통 어촌문화를 간직한 마을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정감 넘치는 우리마을! 하나되는 강동!

해돋이와 푸른 동해 바다, 전통 어촌문화가 살아 숨 쉬는 강동면의 매력을 길놀이에 담았다. 농악대의 신명 나는 풍악과 함께 떼배가 등장하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창경이라는 어구를 활용한 전통어업방식인 창경바리 어업을 재현한 길놀이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레드캣 프리부

마을의 정을 상징하는 감 모자를 쓴 사람들이 선보이는 강동면 댄스가 황금빛 에너지를 발산한다.

왕산면

#고랭지 채소와 쌀, 개두름 등이 유명한 농업지대
#화전민의 역사가 서린 마을



멧돼지 사냥 재현 놀이

척박한 자연을 개척한 화전민의 정신이 강릉단오제에서 되살아난다. 옛날부터 왕산면에서 전해지는 ‘멧돼지 사냥’ 풍습으로 과거 마을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나무로 만든 스키, 설피, 주르먹, 창 등 지금은 사라진 생활 소품들도 볼거리를 선사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주민들로 이루어진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며 축제를 더욱 흥겹게 하니 어깨춤이 절로 난다.

성산면

#강릉단오제 신목 행차가 가장 먼저 들르는 곳
#영신햇불놀이와 용물달기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어둠을 넘어 빛의 세계로

성산면에 전해져 내려오는 영신햇불맞이와 용물달기라는 풍습의 재해석을 통해 우울, 분노, 공포,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애환을 빛으로 승화하여 치유, 안정, 희망, 평화를 춤과 음악으로 풀어가는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거북이의 ‘빙고’라는 음악을 배경으로 무녀와 농악이 한을 풀어가는 고향에 소망을 빌어본다.

연곡면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
#울곡 이이도 반한 절경인 '소금강'이 큰 자랑거리



품으니 연곡이다

연곡면은 마을의 자연과 사람, 문화를 모두 품어내는 역동적인 축제형 퍼포먼스를 선보이고자 한다. 울곡 이이가 저술한 「유청학산기」 내용에 따라 천혜의 휴양지 연곡면의 과거와 현재를 관객들과 함께 돌아보고, 지역특산물인 딸기 소품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레드카펫 프리뷰

신나는 난타 공연에 맞춰 연곡의 이야기를 담은 카드 섹션을 펼치며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옥계면

#강릉 최남단의 마을
#소도시, 농촌, 어촌, 공장지구 등 다양한 생활 양식을 보유한 곳



옥계 5일장

옥계면은 매월 4·9일에 열리는 전통시장인 옥계 5일장의 정겨운 풍경과 활기를 담은 길놀이로, 살기 좋고 신명나는 마을의 매력을 뽐낸다. 장돌뱅이·상인·주민이 어우러진 행렬과 옛장수·뽕튀기 퍼포먼스 등을 통해 옥계면의 삶과 고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전통시장 특유의 흥과 활력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관객들을 향수 어린 추억 속으로 안내한다.

초당동

#초당두부마을이라는 수식어를 지닌 곳
#맛집과 분위기 좋은 카페 등이 모여있는 핫플의 성지



맛과 정이 가득한 우리 초당동

강릉 초당마을의 양대 자산인 '초당두부'와 '미역' 등 초당동만의 독창적인 로컬리티를 대중적 퍼포먼스로 재해석한 길놀이가 눈길을 끈다. 익살스러운 자존심 대결을 펼치던 두부팀과 미역팀이 외부의 시련(자연재해)을 통해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마을의 응집력과 생명력을 보여준다.



레드카펫 프리뷰

대형 맷돌 돌리기, 강문호에 휘감긴 미역, 비바람을 형상화한 부채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의 향연

사천면

#매년 즙상날에 풍년을 기원하는 사천하평답교놀이를 전승해 온 마을
#넓은 평야와 바다가 공존해 농업과 어업이 동시에 발달한 곳



사천의 사계절

봄이면 개두름이 한창이고, 여름이면 푸른 바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곳! 가을엔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이 넉넉한 주민들의 인심을 알게 해주는 곳! 겨울엔 하얀 눈과 같은 한과 마을의 풍경 등 사천의 아름다운 사계를 만나는 시간. 마을의 사계를 표현한 대장기를 비롯해 개두름, 바다, 사천하평답교놀이, 한과를 표현한 컬러풀한 깃발이 거리를 온통 수놓는다.



레드카펫 프리뷰

바람을 가르는 오색 깃발이 필력이며 사천하평답교놀이를 재해석한 퍼포먼스가 축제 현장을 압도한다.

구정면

#강원무형문화유산 '강릉학산오독떼기'를 전승해 온 마을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을 보유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곳



구정, 꽃으로 풀리니 단오다

구정면은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으로 모셔진 범일국사의 탄생지로 알려진 만큼,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학'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압도한다. 구정면을 상징하는 거북이를 비롯해 7개 마을의 대표 상징물이 등장해 구정면의 특색과 화합을 보여 준다.



레드카펫 프리뷰

오방색 끈으로 연결된 주민들이 갈등을 딛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 봄꽃처럼 화려하다.

주문진읍

#동해안 최대 어항 중 하나인 주문진항이 자리한 마을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대중들에게 각인된 관광명소



2026 주문진 전통의 달을 올리고 현대의 파도로!

명태와 오징어, 공치가 개락(강릉사투리로 '많다'는 뜻)이던 주문진항의 전성기를 만나 본다. 풍요를 상징하는 오징어배의 출현과 함께 주문진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한편의 웅장한 서사를 풀어낸다.



레드카펫 프리뷰

과거 어민들의 생활 터전에서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K-컬처의 성지로 떠오른 주문진항의 변신을 체감할 수 있다.

경포동

#자연과 문화, 역사가 잘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
#강릉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경포해변을 품은 마을



경포의 썸머 판타지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강릉은 여름 휴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이다. 경포동은 여름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대의 홍장암 설화와 경포해변의 푸른 바다를 표현하는 의상과 소품으로, 해변의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자유롭고 신나는 분위기로 퍼레이드를 펼친다.



레드카펫 프리뷰

여름날의 에너지를 담은 젊은이들의 댄스로 더욱 뜨거워지는 축제의 열기

포남1동

#주거지역과 상권, 다양한 행정기관이 모인 지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주민 간의 정이 살아있는 마을



용의 귀환

포남1동의 중요한 문화자산인 '용지각'의 전설을 바탕으로 주민 화합과 '용의 마을'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살리고자, '용'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물속으로 뛰어든 말 두 마리가 용으로 승천했다는 용지각의 전설이 오늘날의 용마거리로 이어짐을 상징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용지각 조형물과 용 두 마리의 역동적인 춤이 볼거리를 더한다.

교2동

#지역정신 문화의 산실 '강릉향교'를 품은 마을
#교통의 요충지인 강릉역이 자리한 곳



예를 품은 교2동, 흥을 풀어내다

선비의 예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교2동은 절제 속에 감춰져 있던 흥과 신명을 깨우고자 한다. 단오판 위에서 갓을 쓴 광대가 되어 주민과 함께 웃고 춤추며 신명의 길을 여는 유생들의 아름다운 반란이 시작된다.



레드카펫 프리뷰

전통혼례가 이루어지는 동안 웃고쁨을 풀어헤치고 흥겨운 춤을 추는 유생들의 대반전 모습

홍제동

#강릉의 관문으로 통하는 마을
#국사여성황사, 경방댁 등이 자리하고 있는 강릉단오제 중심지



대관령국사성황신과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이 첫날밤을 보낸 마을, 홍제동

홍제동은 대관령의 매서운 바람을 견디던 외로운 성황신(범일국사)이 호랑이의 중개로 인간 세상(홍제동 정씨 처녀)과 조우한 '첫날밤'의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길놀이로 선보인다. 강릉단오제의 상징인 장자마리의 풍요·다산 에너지와 세대별 커플들을 결합하여,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수많은 연인의 탄생과 새 생명의 번창을 기원하는 흥겨운 가무를 한껏 즐겨보자.

내곡동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위치한 교육의 중심지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을 간직한 유서깊은 마을



효의 마을-100세 장수마을 내곡동, 경로잔치와 내곡동 대표 기업과 학교

경로효친의 전통을 이어가는 내곡동은 효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을의 장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모두가 함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한 길놀이를 펼친다.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장에 마을 안에 있는 학교와 기업들도 함께 좋은 날을 기념하고자 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잔치의 꽃은 특별 공연! 태권도 격파시연으로 대박이 터지고, 복이 쏟아진다.

포남2동

#매년 소동산봉수대 거화의식을 통해 지역문화유산인 소동산을 지키는 마을
#걷기 코스로 인기인 '춘감봉'을 품은 곳



소동산 봉수대! 강릉단오제 개막을 알리다

소동산봉수대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복원에 참여한 지역의 문화자산이다. 그러한 상징성은 강릉단오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퍼레이드에 등장한 소동산 봉수대 모형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은, 강릉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준다.



레드카펫 프리뷰

봉수대 거화의식은 잠잠하던 우리네 마음 속 신명을 깨운다.

강남동

#도시와 농촌 통합 행정동
#월화정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결혼식

명주군왕 김주원의 탄생배경이 되는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를 길놀이로 담아냈다. 멀리 떨어진 무월랑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연화낭자가 쓴 편지를 잉어가 물어다가 무월랑에게 전달하면서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이룬다.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성대한 결혼식에 참석한 강남동 주민들이 다함께 축하 잔치를 펼친다.



레드카펫 프리뷰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결혼식 축하 공연은 주민들의 셔플댄스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된다.

성덕동

#농업과 어업, 공업이 골고루 발달한 복합지역
#신라 화랑의 다도유적지인 '한송정'을 품은 마을



성덕동 주민과 화랑도 정신이 함께하는 풍류 속으로

성덕동은 한송정과 월대산 등 마을이 지닌 고유의 자원들이 어우러진 스토리텔링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한송정에서 풍류를 즐기던 화랑들이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월대산에서 흥겹게 노니며 화랑도 정신을 전하고, 강릉시리틀야구단과 중앙고 축구단, 남녀노소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풍류를 잇는 성덕동의 화합을 보여준다.



레드카펫 프리뷰

성덕동 주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선보이는 댄스! 댄스! 댄스!

중앙동

#3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문화·교육·의료·금융·상업 시설 밀집 지역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마을



중앙동의 길, 단오로 풀리다

2026 강릉방문의 해와 강릉단오제를 맞이하여 중앙동은 조선시대 강릉 부사의 행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중앙동이 품고 있는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부사, 군관, 기수단, 취타대, 호위무사 등이 거리로 나와 강릉의 전통과 품격을 표현한 웅장한 퍼레이드를 선사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손에 손을 잡은 주민들이 강강술래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흥을 나누며 하나가 된다.

송정동

#강릉커피거리와 솔향거리로 관광 명소로 거듭난 마을
#강릉커피축제 개최지



성황신의 눈물 한 잔(커피)으로 송정동에서 k-폴임을 시작합니다

강릉커피축제가 개최되는 송정동은 커피나무가 '신의 눈물'에서 자라났다고 믿은 에티오피아의 오로모족의 이야기를 로컬화하여 성황신의 눈물(커피)을 신에게 올리며 세대와 지역의 해원과 치유를 기원하고, 커피로 물들인 한복으로 커피를 즐기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국사성황신에게 커피로 제례를 올리고, 커피자판기 퍼포먼스를
더하니 절로 흥이 오른다.

교1동

#강릉에서 제일 많은 학군을 보유한 교육의 중심지
#김유신 장군을 모신 화부산사를 품은 마을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이 다시 강릉으로 놀러 왔다

신라시대 강릉에서 화랑 수련을 하던 김유신 장군이 천년이 지난 후 다시 나타나 벚꽃
흘날리는 교1동의 술올블라썸 행사장을 찾아왔다! 교1동은 강릉단오제가 지닌 공동체성,
흥, 길놀이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화부산사에 깃든 김유신 장군의 설화를 술올블라썸의
봄꽃 축제와 연결하는 창작형 거리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레드카펫 프리뷰

화랑복을 입은 청소년들의 파워 댄스 퍼포먼스!

옥천동

#공공기관, 금융·보험업체 및 의료기관이 밀집된 상업중심지역
#수문리와 대창리 당간지주 등 도심 속 문화유산을 간직한 마을



"천년의 옥천동 은행나무"와 함께 "강릉의 미래 세계화"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인 '옥천동 은행나무'와 마을의 보물인 '수문리와 대창리의 당간
지주'를 통해 강릉의 현재와 미래를 염원하는 마음을 길놀이와 담았다. 평화, 화합,
희망, 번영의 의미를 담은 LED 풍선을 든 주민들은 은행알 모양의 사탕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행운을 전한다.



레드카펫 프리뷰

강릉의 글로벌화(세계화)를 위한 옥천동민의 뜨거운 마음이
신명나는 농악에 실려 가슴을 뛰게 한다.

영산홍

편곡 이연희

2026 강릉단오제와 함께합니다

♩=ca.148

[전주]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 - 자자 - 영산 홍

[다같이]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 - 싸기화 자자 - 영산홍



1.영산홍 - 로 봄바람 - 에 가 - 지가 지가 꽃피웠 - 네기화 자자 영산홍

2.꽃밭일 - 레꽃밭일 - 레사 - 월보름달 꽃밭일 - 레기화 자자 영산홍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 - 싸기화 자자 - 영산홍



3.일 - 년 - 에 한 번밖 - 에 못 - 만나는 우리연 - 분기화 자자 영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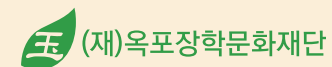
4.가 고파 - 라 가고지 - 고어 - 서바빠 가자서 - 라기화 자자 영산홍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 - 싸기화 자자 - 영산홍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2026 강릉단오제

풀리니,
단오다